

“직접 만들고 느끼고 경험해 보면 방학숙제는 아이들의 놀이일 뿐”

학부모 이정선씨 “방학숙제 즐겁게 해 봐요”

요즘 방학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숙제가 체험학습 보고서다. 옛날엔 식물재배나 우표수집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걸로 했던 것 같다. 체험학습 보고서, 여행을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숙제다. 아니 여행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체험도 할 수 없는 숙제다.

또한, 요즘 아이들은 방학하면 학교 다닐 때보다 학원을 더 바쁘게 다닌다. 영어, 수학은 필수, 미술, 피아노 여기에 캠프까지 정말 어른보다 더 바쁜 하루를 보낸다. 누구를 위해 공부를 하는지, 캠프를 가는지 모르는 그런 하루를 보낸다. 나 또한 이런 엄마다.

지금 생각하니 아주 간단한 게 숙제였다. 나는 아이와 함께 자연에서 배우며, 느끼며, 즐기며, 숙제를 하고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에 가서 운동을 한다. 그리고 나무 관찰 일기를 쓴다.

지금 내가 만지며 보고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책을 보면서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열매를 맺는지 아이들이 찾는다. 내일은 어떤 나무를 공부할까 하며 더 궁금해 하고 아이들이 더 즐거워한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다. 하루도 빠지지 않으면 좋겠지 만 비가 오면 갈 수 없는 게 산이다.

이 관찰일기는 훌륭한 방학숙제가 된다. 건강 또한 눈에 띄게 좋아진다. 온 가족이 함께 부지런함을 배우는 것 같다. 체험학습보고서와 그리기 숙제- 흔히 재미없고 딱딱한 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다. 하지만 요즘은 어린이 박물관이 생겨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멀리 여행을 가지 않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박물관.

엄마도 이제는 아이와 함께 즐겁게 즐기면서 아이의 도우미가 되었으면 한다. 미술관 또한 훌륭한 학습장이다. 요즘은 그리기 숙제도 미술학원에서 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미술관에 가면 보는 눈이 생기고 따라 그리고 싶어지고 어느새 아이는 그리기를 혼자 하기 시작한다. 학원에서 배우지 않아도 그리기를 잘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따라 그리기를 하면 어느새 아이는 그리기 숙제를 혼자서 해 놓는다. 제일 싫어했던 숙제가 생각났다.

글짓기나 독후감 쓰기다. 지금 아이들 역시 제일 싫어하고 없으면 하는 숙제라고 한다. 나는 아이와 가끔 도서관에 간다. 시립도서관도 좋고 도립 도서관도 좋다.

하지만 어린이 도서관이 생겨 다니다 보니 아이들은 보면서 책을 읽는다. 아무런 부담도 없이 책을 읽다가 놀다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방학숙제는 아이들이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사진은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부채만들기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모습.

다. 옛날처럼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도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책 읽어 주시는 선생님이 따로 오셔서 책을 읽어 주신다. 아이들은 어느덧 한번 두 번 듣다 보니 이제 술술 이야기가 나온다. 책을 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것 저것 만들기도 해본다. 어린이 도서관에 다니다 보니 어린이 독서 캠프도 있었다.

2년 전 나는 모든 학원을 끊었다. 줄 줄 외우는 공부보다 직접 내 몸으로 느끼면서 하는 경험이 더 좋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정말 간 큰 엄마,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아이를 믿으며 지켜보고 아

이와 직접 이것 저것 내 손으로 만들고 경험하니 정말 기다린 보람이 있듯 방학 숙제도 혼자서 해나간다.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는 여름 방학, 아이들은 방학 숙제 때문에 바쁘다. 일기, 체험학습 보고서, 그리기, 꾸미기, 글짓기 이런 모든 것들은 방학숙제이기보다는 내 아이가 지금 해야 할 아이들의 놀이일 것 같다.



이정선 <학부모>

클릭! 맛집



다시마·멸치·무 우린 물에 재래된장 듬뿍~

원기 되찾아 주는 ‘고향의 맛’

■광주시 공동 밀락원 ‘된장찌개’

아직도 해질녘이면 고향집에 뜨끈한 된장찌개 한 그릇 끓고 있을까. 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밀락원(업주 김성숙)은 재래된장으로 끓여낸 된장찌개가 구수하다.

시중에서 파는 개량식 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라도 개미’가 있다. 주인공의 고향에서 가져오는 된장을 듬뿍 풀어, 한 술 뜨면 ‘이 맛이구나’라는 감탄사부터 나온다.

다시마, 멸치, 무를 넣고 우린 물에 된장, 감자를 넣고 한소끔 끓여낸 뒤 넉넉하게 두부를 넣어 맛을 냈다. 살짝 덜 익힌 파는 된장 특유의 군데내를 없애준다.

이 집 된장찌개는 열이 쉬이 식지 않는 웅기에 내온다. 웅기에 담는다고 맛이 뒤 달라지겠지만은 고향 맛

의 아우라는 느껴진다.

또 된장찌개를 시키면 사킨 지 얼마 안 된 연인처럼 계란찜이 꼭 붙어온다. 계란찜에는 몸이 좋다는 당근을 듬뿍 넣어 맛과 영양의 균형을 잡았다.

해남쌀을 팔아서 밥을 지어 맛도 차지다. 밀반찬에도 갖가지가 자주 간다. 파김치, 멸치, 무채, 잡채, 콩, 감자채, 김치, 찹쌀, 고추, 김, 송어젓갈. 주인공이 매일 장을 봐 직접 맛을 내는 이들 밀반찬에도 정성이 가득하다.

맛있게 먹는 법 한가지. 훈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에 송어젓갈을 올려 김에 싸 먹은 뒤 입안에 찹쌀이 퍼지자 전에 된장찌개 한 술 얼얼 뜨면 된다. 된장찌개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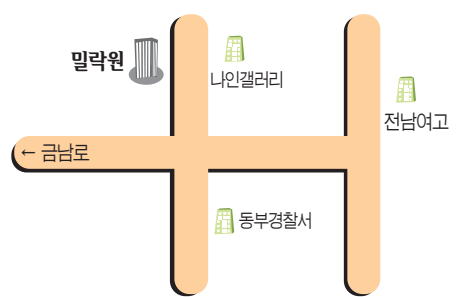
저녁에는 해물과전, 김치전에 동동주도 한 잔 할 수 있다. 문의 062-225-2679.

/글·사진=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재래된장으로 끓여 낸 된장찌개>

■찾아가는 길



■칭찬합니다

‘갑상선 암 수술’ 어머니 친부모처럼 돌봐 준

조선대병원 박준희·김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뜻하지 않는 병고로 저희 어머니(박형지)께서 지난 6월 23일 갑상선 수술을 하셨습니다. 일흔이 넘은 노 부부가 병원에 다니시는 게 못 미더웠던지, 진료 때마다 ‘자식은 안 왔느냐?’라며 찾으셨다는 선생님은.

암 의심 증상으로 수술 전일 입원했을 때도 부모님께 친절히 설명해 주시고, 전화상으로 서울에 있는 이곳난 자시에게까지 수술 내용 등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흔한 수술임으로 여겨서 수술 당일이나 가 볼 참이었는데 어머니의 상황들을 세세히 전해주는 설명을 듣고 덜컥 겁이 나서



<박준희 교수> <김준 씨>

한참을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었죠.

김준 선생님!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수술하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회복실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편안한 얼굴과 들려왔던 목소리가

원래대로 나오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마음 약한 어머니는 두 손 꼭 잡고 안도의 말씀 해 주시는 박준희 선생님이 ‘너무나 고맙다’라며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암이라는 가슴 두터진 판정을 받고도 저희 가족이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수술도 훌륭히 잘 해주시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한 마디에 저희 어머니 큰 용기가 더욱 솟았나 봅니다.

병간호로 병상을 여러 날 지키신 저희 아버지 걱정도 해주시고 자식이 해야 할 일을 많이 대신해 주셔서 고맙고 한편으로 죄송하네요. 박준희 선생님,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변변한 인사도 못 드리고 지면을 통해 대신 감사 인사를 합니다. 건강히 하시는 일 모두 행운이 있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정해심·환자 보호자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독자와 함께’는 우리 고장 기네스, 이웃 미담, 공동체 생활, 삶터 자랑, 추억의 사진 등을 보도하는 열린마당입니다.

‘숨씨자랑’에 실릴 수필, 편지글, 사진 등 투고도 받습니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독자와 함께’ 담당자 앞.

팩스 062-222-4937, e-메일 opinion@kwangju.co.kr.

대인동상업부동산
☎ (112)223-1140, 3210 ☎ 011-602-2532
(영주은행 신본점 옆, 대인동 소말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T: 383-5221 H: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빌딩매매, 투자용**
• 토지600평 건물1,350평(매가68억)
보종금37억/월세3,300만원 용적12억
• 토지1200평 건물2,500평(매가90억)
보종금7억/월세8,000만원(용적50억)
• 토지500평 건물750평(매가 98억)
보종금40억/월세2,000만원 용적12억

▶**토지**
(상무지구 상암지대)
(화사동, 병천, 화원, 기타부지 등)
• 834.5㎡(250평) - 매가 420만원
(골렘버스 구장과 대가학스 중간사거리거포)
• 611㎡(185평) - 매가 680만원
• 1650㎡(500평) - 매가 1,200만원
(상무우리동행원주변)

▶**기타용도**
• (농장)73,000㎡(22만2천평)
평당 10만원(동산동가부지로 좋은곳)
• (농지)상가용 약 3000평
평당 3000원-고려고추원(마트예식장 동쪽편)

▶**호텔/모텔**
• 상무지구 성원중원 호텔 모델 다수있음
현금 20억 40억 투자 1부 이상 수익률 가능함

▶**상가매매 (상무지구, 상무역사이드)**
• 상가 150평(10층) 매가 420만원
개발될지 있음. 학원, 특설실, 사무실 등 계획
• 새마을은행 주변 역세권상가 있음
대형 의무주차 가능 상가 전후 상담 가능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드리며,
정리해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하십시오.

경매 취하 부동산
현재 시세 15-50% 할인 매물

아파트·단독·다세대주택·상가·토지

- * 금융권 경매 취하 부동산 매매 *
- * 개인권 경매 취하 부동산 매매 *
- * 기타권 경매 취하 부동산 매매 *
- * 경매 예정 진행 부동산 상담 *
- * 경매 잔금 대납 부동산 상담 *
- * 부동산 재테크 투자 상담 *

금호부동산컨설팅
☎ 224-5959, 010-2831-1733
광주광역시 동구 총장로 4가 36-3번지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급매물 중개 전문)

공시지가+건물과표15억/매매가11억
▶ 대지300평건물450평보종금1억5천20m도로점
분양가8억아파트1300세대상가매매가2억5천
▶ 35m도로 점 1층 상가 건물 약 100평 지분 93%
한의원 내과 적합

공시지가+건물과표6억매매가3억5천
▶ 현제현의원겸영종대130평건230평상업지역
공시지가+건물과표7억매매가4억2천
▶ 대 100평 건 300평 상업지역

상업지역약95p
▶ 공시지가3억5천매매가2억4천30m 도로 점
남해바닷가 700,000p 임야 140억, 골프장 태양광

32억빌딩급매
▶ 대 200p 건 450p
도 8억월 월2350만원 용 13억포함
화순도곡12000p

관리지역12억
▶ 강정가45억매매가24억5천
▶ 빌딩급매대지500평건물1000p지하1층,
지상5층전체공실

화순주유소급매
▶ 대 600p 세차시설 카센터 주유기 12대
매 12억 용적 6억포함

화순,절터,요양원,필장부지
▶ 9500p 현재 활동방 창고관리실
주택조경수 식재 딱 4억5천

▶ 59억 빌딩 대 1000㎡ 건 5500㎡ 보종금 20억
월세 4천 용적 15억 포함

▶ 장성업야사슴목장,별장 100,000p 4억7천
▶ 장성 포지적 합판디밭 600p 7000만원

원동매매
▶ 계림동홀플러스대115p,건200p보종금1억,월세425만원
공시지가+건물과표 15억
대 300p 건 350p 매매 11억

경매전문회사
(주)호남경매컨설팅

무료 ☎ 062)228-6600
상담 H.P 010-5616-8988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법원·검찰청 정문 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

- ▶유치권, 법정지상권등 정확한 권리분석
- ▶통계자료와 시세분석에 의한 최적의 낙찰가 제시
- ▶제1,2금융권을 통한 최저금리로 부족한 경락
잔금 대출알선(낙찰가의 50%~80%)
- ▶소유주, 임차인들의 신속한 명도(이사)

☎~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전국 3만여건의 경매물건 중에서 원하시는
경매물건을 찾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